

高昌國·唐代 西州 시기 吐魯番 지역의 葡萄 재배*

이완석**

〈차 례〉

1. 머리말
2. 吐魯番 지역 葡萄園의 규모와 성격
3.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 기술
4. 맺음말

【국문초록】

高昌國·唐代 西州 시기 吐魯番 지역 葡萄園의 소유자는 크게 官과 民間으로 구분된다. 민간 소유자는 다시 官人, 寺院, 일반 農民으로 세분된다. 포도원의 규모는 소유자의 지위와 부유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포도원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도 하였지만 혹은 소작을 통해 포도를 재배하였다.

吐魯番 지역에서는 음력 3월에 포도를 꺾꽂이 방식으로 定植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며 시령을 설치하여 덩굴을 지탱하였다. 포도원 주변에는 경계 구획을 위한 담장이 설치되었으나 포도 생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크게 설치하지는 않았다. 겨울이 되면 포도나무를 둥글게 말아 정리하여 땅에 묻었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凍害를 방지하였다.

주제어 : 吐魯番 出土文書 葡萄 高昌 唐 西州

1. 머리말

葡萄는 현재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이다. 현 新疆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 역사는 유구하여서 이미 前漢 시기 張騫이 “大宛의 左右에서 포도로 술을 만드는데, 富者가 저장한 술이 만여 石이며, 오래 보관한 것은 몇 년이 지났으나 부패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을 남겼다.¹⁾ 또한 장건은 포도와 재배 기술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와 전파하였다.²⁾ 그러나 新疆 지역에서 최초로 포도가 재배된 시기는 전한 시기가 아니다. 2003년 吐魯番 鄯善縣 洋海墓地 중 2500년 전의 묘에서 길이가 1.15미터이고, 매 마디의 길이는 약 11센티미터, 너비는 2.3센티미터인 포도 덩굴이 발굴되었다.³⁾ 따라서 이 지역에서 포도 재배가 시작된

1) 『史記』 권123, 大宛列傳, p. 3173. “宛左右以蒲陶為酒, 富人藏酒至萬餘石, 久者數十歲不敗.”

2) 포도의 중국 전래를 장건이 담당하였다는 통념에 대해 朴世旭은 『史記』 大宛列傳에서 기록된 포도를 가져온 “漢使”가 반드시 장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장건이 전한에 포도를 전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漢 武帝 시기 금원에 포도를 심은 사실은 긍정하였다.(朴世旭, 「中國葡萄와 葡萄酒 傳來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亞人文學』10輯, 2006년, pp. 814-817.)

3) 乜小红, 「對古代吐魯番葡萄園租佃契的考察」,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11年 3期, p. 2.

때는 기원전 5세기 이전이며,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포도주의 양조 또한 시작되었을 것이다.⁴⁾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와 관련된 최초의 중국 측 기록은 魏晉南北朝 시기에 등장한다. 吐魯番 지역에 존 재했던 高昌國에 대해 중국 사서에서는 “五果가 많으며 ... 蒲桃酒가 많다.”⁵⁾라고 하였고 또한 “良馬와 蒲陶酒, 石鹽이 난다.”⁶⁾라고도 하였다.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는 唐代에도 계속되었다. 西域에서 나는 포도주가 종종 唐에 헌납되었고, 당이 고창을 멸망시킨 후 馬乳葡萄를 도입하여 禁苑에 심고 아울러 제조법도 배워 포도주를 양조하니 그 색이 8가지이고 향기로우면서 맛은 醍醐와 같았으며 群臣에게 하사하여 京師 내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시작하였다.⁷⁾

이처럼 吐魯番 지역의 포도에 대해서 사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 기록이 소략하여 실제 재배 정황을 소상히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吐魯番 지역에서 대량의 문서들이 出土되면서 吐魯番의 포도 재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孫振玉은 高昌의 租酒帳을 분석하여 고창국이 租酒制度를 통해 葡萄園을 관리한 사실을 밝혔다. 張南은 니야 유지에서 발굴된 카로슈티 문서 및 吐魯番 출토문서를 이용하여 新疆 남부 지역의 포도 재배와 釀造 기술에 대해 서술하였다. 盧向前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방법을 통해 고창 지역 포도원의 재배 과정 및 포도 가공, 酒稅 징수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王豔明은 吐魯番 포도원의 규모와 속성 및 운용 등에 대해 敦煌文書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⁸⁾ 이런 대표적인 연구 이외에도 많은 학

4) 衛斯, 「唐代以前我國西域地區的葡萄栽培與釀酒業」, 『農業考古』, 2017년 6기, p. 157.

5) 『北史』 권97, 高昌傳, p. 3212.

6) 『梁書』 권54, 高昌傳, p. 811.

7) 『唐會要』 권100, 瑟匿國 附 雜錄, p. 2135.

8) 孫振玉, 「试析麹氏高昌王国对葡萄种植经济以及租酒的经营管理」, 敦煌吐魯番學新疆研究資料中心 編, 『吐魯番學研究專輯』, 『新疆文物』編輯部, 1990年;

자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⁹⁾

吐魯番 지역 포도 재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관련 출토문서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연구하여 큰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문서가 지닌 원래 성격으로 인해 포도원의 租佃, 買賣 契約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하거나, 포도 가공품에 대한 徵稅 문서를 통해 국가의 수취 시스템을 검토하는 등 토지경제사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서 다양한 논의를 펼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본 논문은 포도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를 살펴보고, 주로 출토문서 고찰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인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인 포도원의 규모와 성격을 고찰하고, 高昌國과 唐代 西州 시기¹⁰⁾ 吐魯番

张南, 「古代新疆的葡萄种植與酿造业的发展」, 『新疆大学学报(哲学人文社会科学版)』, 1993年; 盧向前, 「麹氏高昌和唐代西州的葡萄、葡萄酒及葡萄酒稅」, 『中國經濟史研究』 2002年 4期; 王豔明, 「從出土文書看中古時期吐魯番的葡萄種植業」, 『敦煌學輯刊』 2000年 1期, 이상의 대표적 연구에 대한 평가는 也小紅, 「對古代吐魯番葡萄園租佃契的考察」,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11年 3期를 참조.

- 9) 馬燕雲, 「吐魯番出土租佃與買賣葡萄園券契考析」, 『許昌學院學報』, 2006年 6期; 衛斯, 「唐代以前我國西域地區的葡萄栽培與釀酒業」, 『農業考古』, 2017年 6期; 劉永連, 「吐魯番文書“桃”與葡萄關係考辨」, 『中國典籍與文化』, 2008-1; 宋曉梅, 「吐魯番出土文書所見高昌郡時期的農業活動」, 『敦煌學輯刊』, 1997年 2期; 丁君壽, 「從佚盧文契約看鄯善國葡萄園買賣」, 『北方工業大學學報』 29-6, 2017年; 趙美瑩·王龍·黨志豪·蔣洪恩, 「唐西州時期吐魯番的桃樹栽培—從出土文書及實物證據談起」, 『中國科學院大學學報』 37-3, 2020年; 陳習剛, 「吐魯番文書中葡萄名稱問題辨析—兼論唐代葡萄的名稱」, 『農業考古』 2004年 1期; 陳習剛, 「再論吐魯番文書中葡萄名稱問題—與劉永連先生商榷」, 『古今農業』 2010年 2期; 陳習剛, 「吐魯番文書中的“醬”、“漿”與葡萄的加工、越冬防寒問題」, 『古今農業』 2012年 2期; 陳習剛, 「吐魯番所出《高昌張武順等葡萄畝數及租酒帳》再探討」, 『吐魯番學研究』 2015年 1期; 이박, 「新疆 출토 카로슈티 문서에서 본 鄯善國 승려의 세속적 생활 연구」, 『목간과 문자』 27, 2021년; 宮崎純一, 「八世紀以前のトウルフアン地方の農業生産について」, 『佛教大學大學院研究紀要』 13, 1985年.

- 10) 馬燕雲은 포도원의 租佃과 買賣 계약 문서가 주로 출토되는 시기가 “高昌國 시기와 唐 西州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고창국 시기(400-640)는 張

지역의 포도 재배 방식과 기술에 대해 탐구하려 한다.

2. 吐魯番 지역 葡萄園의 규모와 성격

1) 포도원의 소유자와 규모

吐魯番 지역의 토지는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하며 일조량 역시 충분하여 포도 재배에 적합한 지리와 기후 환경을 지니고 있다.¹¹⁾ 다만 吐魯番은 인구가 조밀하고 토지가 협소한 지역이어서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겨우 7, 8畝의 토지를 지닐 뿐이어서 식량 생산량이 충분치 못하였다. 따라서 포도의 재배 및 관련 산업이 주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었다.¹²⁾ 吐魯番 지역의 官司, 寺院, 官吏, 地主, 商人, 일반 농민 모두 다양한 규모의 포도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高昌延昌西歲屯田條列得橫截等城葡萄頃畝數奏行文書」는 다음과 같다.¹³⁾

- 1 截俗四半, 交河俗二半六十步
- 2 安樂俗八畝, 滄林俗四畝, 始昌俗一半, 高寧僧二半
- 3 都合桃一頃九十三畝半
- 4 謹案條列得桃頃畝列別如右記識奏諾奉
- 5 門 下校郎鞠瓊

氏 고창국에서 麴氏 고창까지 시기이며, 주로 국씨 고창 시기라고 하였다. 당 서주 시기는 貞觀14년부터 貞元8년까지(640-792)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대개 馬燕雲의 시기 구분에 의거하여 출토문서를 정리하고 고찰하였다. (馬燕雲, 같은 논문, p. 89.)

- 11) 『魏書』권101, 高昌傳, p. 2243. “地多石磧, 氣候溫暖, 厥土良沃, 穀麥一歲再熟, 宜蠶, 多五果, 又饒漆.
- 12) 王豔明, 같은 논문, p. 53.
- 13)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貳), 北京: 文物出版社, 1994, pp. 168-169.

- 6 通事令史魏□
 7 通事令史史□□
 8 □□
 9 □□
 10 和薄□
 11 陰□
 12 □□□□西歲九月十五日□□□□
 13 □□□□軍扶□□吐諾跋跳鑰歌屯發高昌令尹魏伯雅
 14 右衛將軍 綰曹郎中 歌紹徵
 15 虎威將軍 兼屯田事 焦□□
 16 屯田參□□□□
 17 屯田參□□□□
 18 屯田吏 索善獲
 19 屯田吏 陰保相

- 1 □□□□□截¹⁴⁾ 俗戶 4반, 교하 속호 2반 60보¹⁵⁾
 2 □□□□□ 안락 속호 8무, 오림 속호 4무, 시창 속호 1반, 고녕
 僧戶 2반
 3 도합 포도¹⁶⁾ 1경 93무 반
 4 삼가 얻은 포도원의 면적을 오른쪽과 같이 조목조목 나누어 기록
 하여 올립니다.

- 14) 『梁書』에는 高昌國이 설치한 46鎮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橫截, 交河, 洿林, 始昌, 高寧 등이 포함되어 있다. (『梁書』권54, 諸夷傳, p. 811.) 따라서 “□截”은 橫截로 판단하여 번역하였다.
 15) 步는 田地의 丈量 단위이다. 周代에는 1步가 8尺이었고 秦代에는 6척이었으나 이후 시대마다 그 길이가 각기 달랐다. 唐代에 전지 1畝는 너비 1보, 길이 240보였다.(王啓壽, 『吐魯番出土文獻詞典』, 成都:巴蜀書社, 2012年, p. 98.)
 16) 葡萄의 어원은 그리스어 Botrus이며, 일설에는 페르시아어 budawa가 어원이고 그 뜻은 술이라고 한다. (馬燕雲, 같은 논문, p. 89.) 출토문서에서 “蒲桃”, “浮桃”처럼 포도의 표기 방법은 다양하며, 약칭으로 “桃”라고도 한다.

- 5 문 하 교 랑¹⁷⁾ 국 경¹⁸⁾
- 6 통 사 영 사 위 □
- 7 통 사 영 사 사 □□
- 8 □□
- 9 □□
- 10 화 박□
- 11 음 □
- 12 □□□□ 西歲 9월 15일 □□□□
- 13 □□□□ 庫 肱 疊 □□ 吐諾跋跢 毘 鎗 屯 發 고창영윤 국백아
- 14 우위장군 관조낭중 𠂔소징
- 15 호위장군 겸둔전사 초□□
- 16 둔전참□ □□□
- 17 둔전참□ □□□
- 18 둔전리 색선희
- 19 둔전리 음보상

문서 중의 “兼屯田事”, “屯田吏” 등의 관직명은 이 포도원들이 관의 소유임을 보여준다. 문서 내용으로 보아 포도원들은 “橫截”, “安樂”, “滄林”, “始昌”, “高寧” 등 高昌 내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면적 역시 균일하지 않아 “4반”, “2반 60 보”, “8무”, “4무”, “1반”, “2반” 등이며, 총합은 “1경 93무 반”이

-
- 17) 고창의 官制는 국왕을 중심으로 王命을 발출하고 상주 문서를 올리는 기관은 크게 두 관사였다. 文事는 門下가 담당하고 武備는 中兵이 관장하였다. 문하의 장관은 門下校郎이며, 通事舍人・通事令史・省事・侍郎 등의 관인이 속했다. 중앙행정기구의 수장은 高昌令尹이었고 차관은 綰曹郎中이다. 고창영윤은 대개 世子가 담당하였으며 관조낭중은 종실이나 著姓이 담당하였다. 吏部・祠部・庫部・倉部・主客・禮部・民部・兵部の 8부가 설치되었고 낭중・시랑 등이 소속되었다. 고창 관제에 대해서는 王素, 『麴氏高昌中央行政體制考論』, 『文物』, 1989年 11期를 참조.
 - 18) 官文書에서 姓은 관문서의 작성자가 일괄하여 쓰지만 名은 관인 본인이 직접 쓴다.

다. 이 문서는 출토문서 중 가장 명확한 포도 둔전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관에 소속된 포도원에 관련된 다른 문서로는 「武周聖元年(695)前官陰明子牒爲官葡萄內作夫役頻追不到事」¹⁹⁾, 「武周聖曆元年(698)前官史玄政牒爲四角官葡萄已役未役人夫及車牛事」²⁰⁾, 「武周聖曆元年(698)四角官葡萄所役夫名籍」²¹⁾이 있다. 이 3건의 문서들은 관사 포도원인 “四角官葡萄” 내의 役 관련 정황을 다루고 있다. 뒤의 2건은 “77人이 역을 이미 마쳤고, 19인이 아직 역을 마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武周聖曆元年(698)四角官葡萄所役夫名籍」에서는 “安大壽” 등 77인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3건의 문서 내에서 “사각관도”의 면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7명을 사용할 정도로 방대한 役人의 수로 추정해 볼 때 포도원의 규모는 작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吐魯番 지역에서 사원은 대규모의 토지와 재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대다수 사원이 포도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高昌諸寺田畝官絹帳」²²⁾에서는 “[]三十八畝半六十步桃九畝園一株”, “[]桃四畝”, “[]桃二畝半六十步”의 기록이 발견되었고, 「高昌諸寺田畝帳」²³⁾에서는 “[]四十三, 次九, 桃四畝六十[]”, “[]寺明瑜田十三畝六十步, 桃[]”, “[]法郎田十五半, 桃四”, “[]藏田二半, 桃[]”, “[]寺[]意田十七半, 桃二半六十步”, “善和寺田五畝六十步, 桃二畝” 등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건의 문서는 고창국 시기의 것이며, 사원이나 寺主의 이름이 缺落되었거나, 포도원의 면적 숫자가 결락되었다. 이 사원들은 모두 포

19) 唐長孺 主編,『吐魯番出土文書』(參),北京:文物出版社,1996, p. 519.

20) 唐長孺 主編,『吐魯番出土文書』(參), p. 521.

21) 唐長孺 主編,『吐魯番出土文書』(參), p. 522.

22) 唐長孺 主編,『吐魯番出土文書』(貢), p. 259.

23) 唐長孺 主編,『吐魯番出土文書』(頁), pp. 255-258.

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무에서 13무까지 그 면적이 다르다. 이 문서들은 사원이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또한 사원의 이름에 “포도”가 포함된 사례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高昌信相等寺僧尼名籍」²⁴⁾에는 “趙浮桃寺”가 있고, 「高昌某年浮桃寺等醉酒名簿」²⁵⁾에는 “浮桃寺”가 존재하는데, 이 두 사원이 동일한 사원인지는 알 수 없다. 吐魯番 지역에서 세속은 물론 사원에게 있어서도 포도 재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출토문서 중에는 종종 사원의 소유자의 姓을 따서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 “趙寺”, “張寺”²⁶⁾ 등의 사례가 발견된다. “趙浮桃寺”는 원래 趙寺라는 사원에서 포도를 재배했기에 지어진 이름일 것이며, “부도사”의 경우는 심지어 사람들이 사원의 원래 명칭을 대신하여 부도사라고 바꿔 부르다가 아예 굳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사와 사원에서 보유한 대형 포도원 이외에, 吐魯番에서는 민간의 개개인도 포도원을 소유하였다. 관리, 지주, 상인이 포도원을 보유하고, 일반 농민 역시 포도원을 소유하였다. 「高昌延壽四年(627)參軍汜顯佑遺言文書」²⁷⁾에서는 “연수 4년 정세 윤4월 8일, 參軍 汜顯佑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문서를 만드니, 석당거 쪽의 포도원 한 곳을 이모에게 유증한다.(延壽四年丁歲閏四月八日, 參軍汜顯佑平生時作夷(遺)言文書. 石宕渠蒲桃一園與夷(姨)母.)”라고 기록되어 있다. 범현우는 비록 小吏이지만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유산으로 친척에게 남겼다. 이 외에 「高昌勘合高長史等葡

24)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壹), 北京: 文物出版社, 1992, pp. 456-457.

25)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壹), p. 259.

26)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壹), p. 393, 「高昌延壽元年(624)張寺主明眞雇人放羊券」.

27)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貳), pp. 204-205.

萄園畝數帳」²⁸⁾에서는 “高長史下蒲桃”, “高相伯下蒲桃”, “將馬養保下蒲桃”, “常侍平仲下蒲桃”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長史, 相伯, 將, 常侍는 고창국 시기 관리이며, 본인 소유의 포도원을 경영하거나, 자신의 포도원을 타인에게 대신 경작하게 하였다. 「唐總章元年(668)西州高昌縣左憧憲爲租佃葡萄園事」²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1 總章元年七月 日, 高昌縣左憧憲
- 2 張渠蒲桃一所 舊主趙回
- 3 縣司: 憧憲先租佃上桃, 今
- 4 恐屯桃人並比鄰不委, 謹以辭陳,
- 5 公驗謹辭.

- 1 總章元年 7월 일, 고창현 좌동희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장거의 포도원 한 곳의 옛 주인은 조회
- 3 현사: (좌)동희는 먼저 상기한 포도원을 소작하게 하고, 지금
- 4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근에 위탁하지 않음을 걱정하여 삼가 말씀을 올려 진술합니다.
- 5 공驗. 삼가 아뢰입니다.

다른 출토문서에 의하면 左憧憲는 고창 崇化鄉 사람으로 前庭府衛士였다. 그는 자산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직접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 이외에 토지를 임대하거나 소작하거나 혹은 매매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수행하였다. 「唐乾封元年(666)左憧憲夏田契」, 「唐乾封元年(666)左憧憲夏葡萄園契」, 「唐總章三年(670)左憧憲夏菜園契」³⁰⁾ 등의 출토문서가 좌동희의 경제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28)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壹), p. 442.

29)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參), p. 221.

30)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參), pp. 217-222.

일반 농민들이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 역시 보편적 현상이었고, 이는 戶籍, 田籍, 手實 등의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 「唐貞觀某年西州高昌縣范延伯等戶家口田畝籍」³¹⁾, 「武周載初元年(690)西州高昌縣寧和才等戶手實」³²⁾, 「唐開元四年(716)西州高昌縣安西鄉安樂里籍」³³⁾, 「唐開元二年(714)帳後西州柳中縣康安住等戶籍」³⁴⁾, 「唐開元十九年(731)西州柳中縣高寧鄉籍」³⁵⁾, 「唐永昌元年(689)西州高昌縣籍坊勘地牒」³⁶⁾을 보면, 高昌縣城 및 그 주위의 柳中縣, 安西鄉 등지에 포도원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었다. 일반 농민들은 1무에서 4무까지 평균 2~3무 정도의 포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도원은 그 주인이 보유한 총 토지 중에 8~92%를 점유하고 있다.³⁷⁾ 吐魯番 지역의 농민이 모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많은 농민이 포도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포도 재배가 吐魯番 지역의 사회경제 생활 중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³⁸⁾

이상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의 규모 및 관사, 사원, 개인 등의 보유 현상을 살펴보았다. 포도 재배는 吐魯番 지역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유행하였으며, 당시 농업 경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31)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貳), p. 216.

32)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參), p. 498.

33)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肆), p. 145.

34)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肆), p. 127.

35)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肆), p. 193.

36)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參), p. 494.

37) 王豔明, 같은 논문, pp. 55-56.

38) 程喜霖은 출토문헌 분석을 통해 고창국 시기 포도주의 조세가 畝 당 3斛이었다고 추정하였다. (程喜霖, 「吐魯番文書中所見的麴氏高昌的計田輸租與計田承役」, 『出土文獻研究』, 1985年, pp. 159-174.) 盧向前은 이를 바탕으로 吐魯番 지역의 포도원 면적을 3063무, 즉 30여 경으로 계산하고, 고창 전체 田地인 900경 중 포도원이 3~4%를 점유하였다고 추산하였다. (盧向前, 같은 논문, pp. 112-113.)

있었다. 출토문서 중에서는 거대한 면적의 포도원에 관한 기록도 존재한다. 「唐田畝簿」³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1 下鄉
- 2 常田九十四畝五
- 3 常田桃三頃一十
- 4 常田萊三頃七十七
- 5 軍上官田廿四畝

- 1 下鄉
- 2 常田⁴⁰⁾ 94무 50
- 3 상전 포도 3경 10
- 4 상전 萊 3경 77
- 5 軍上官田 24무

문서 중 “常田桃三頃一十 ”은 현재까지 출토문서에서 발견된 가장 큰 포도원이다. 확인하기 어려우나, 거대한 규모로 보아 이 포도원은 사원이나 개인의 소유가 아닌 관사 소유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 『吐魯番回鶻文社會經濟文書研究』에 수록된 「償還地價」와 「台樂爾皮西賣葡萄園」라는 2건의 문서 중에 “火州의 太倉의 葡萄園城 포도원”과 “태창의 16명이 경작해야 하는 포도원”이

39)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貳), p. 137.

40) 상전은 連作이 가능한 田地를 말한다. 상전은 본래 영구히 고정불변의 전지를 가리키며 당대 均田制의 永業田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출토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전에는 麥粟을 심어 5월에 한 번 수확하고 10월에 한 번 수확한다. 이로 보아 상전은 쉬지 않고 연속해서 경작하는 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張永莉, 『吐魯番契約文書詞語例釋』,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pp. 31-32.) 다른 한편으로는, 상전을 휴경 없이 계속 이어서 경작할 수 있는 전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趙文潤, 「從吐魯番文書看唐代西州地租的性質及形態」, 『敦煌學輯刊』, 1989年 1期, p. 18.)

라는 구절이 발견된다.⁴¹⁾ 太倉古城 및 그 주위에 거대한 포도원이 존재하고 그 규모의 거대함과 오랜 역사로 인해 “포도원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2) 포도원의 還授, 租佃, 買賣

오아시스 지역인 吐魯番에서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토지의 합리적인 점유와 사용을 위해 토지의 租佃, 매매 및 환수 등이 빈발하였다. 출토문서 중에서도 포도원의 환수, 조전, 매매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열거한 「唐貞觀某年西州高昌縣范延伯等戶家口田畝籍」, 「武周載初元年(690)西州高昌縣寧和才等戶手實」, 「唐開元四年(716)西州高昌縣安西鄉安樂里籍」, 「唐開元二年(714)帳後西州柳中縣康安住等戶籍」, 「唐開元十九年(731)西州柳中縣高寧鄉籍」, 「唐永昌元年(689)西州高昌縣籍坊勘地牒」은 모두 戶籍, 田籍, 手實 등의 문서로 토지의 환수와 관련이 있다. 문서에서 등장하는 개인 소유의 포도원은 “常田”인데, 상전은 당대에 授田 대상이었다. 포도원의 授田이 口分の 형식으로 수수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 「唐總章元年(670)白懷洛舉錢契」⁴²⁾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總章三年三月廿一, 順義鄉白懷洛于

2 崇化鄉左憧憙邊舉取銀錢

3 十文. 月別生利錢一文. 到月滿日,

4 白即須送利. 左須錢之日, 白即須子本

5 酬還. 若延引不還, 聽牽取白家財

6 及口分平爲直. 仍將口分蒲桃用作

41) 王豔明, 같은 논문, p. 56.

42)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參), p. 224.

7 錢質. 身東西不在, 一仰妻兒酬還

8 錢直. 兩和立契, 獲指爲驗.

9 錢主 左

10 取錢人 白懷洛

11 保人 嚴士洛

12 知見人 張執端

13 知見人 索文達

14 白懷洛負左幢意棗樹一根, 好者.

1 總章3년 3월 21일, 순의향 백회락이

2 승화향 좌동희에게서 銀錢을⁴³⁾ 빌리니⁴⁴⁾

3 10文이다. 달마다 이자가 전 1문이고, 월 말일이 되면

4 백회락은 즉시 이자를 낸다. 좌동희가 돈을 요구하는 날에 백회락은 즉시 이자와 본전을

5 돌려준다. 만약 지체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백회락의 가재 및

6 口分 중 (은전 액수와) 균등하게 상환한다.⁴⁵⁾ 구분 포도를

7 돈의 저당으로 삼는다. 백회락의 가산이 없으면 모두 처자가

8 돈을 갚도록 한다. 양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손가

43) 고대 중국에서는 鑄貨의 재료로 구리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출토문서를 보면 고창에서는 銀錢이 사용되거나 부장품으로 매장된 흔적이 발견된다. 이 은전은 페르시아 사산왕조에서 주조한 것과 고창 자체에서 주조한 것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吳姬姬, 『吐魯番出土衣物疏輯錄及所記名物詞彙釋』,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年, pp. 149-150.)

44) 원문의 ‘邊’은 출토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문서들의 내용으로 보아 계약자 중 한쪽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보인다. (趙文潤, 같은 논문, pp. 22-23.) ‘舉’, ‘貸’ 역시 계약 문서에서 빈번히 등장하며 利息이 발생하는 貸借을 뜻한다. 주로 銀錢이나 布匹 같은 재물을 대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舉取’, ‘貸取’ 역시 계약문서에서 빈번히 등장하는데, ‘取’는 실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일종의 衍文이다. (張永莉, 같은 논문, pp. 39-40.)

45) 출토된 계약문서에서는 흔히 “平...爲直”의 구절이 등장한다. 대개 원래 주어야 할 임대료를 주지 못할 경우, 임대료인 물품의 가격과 균등한 값 어치만큼 임차인의 집 안의 물건으로 상환한다는 뜻이다. (張永莉, 같은 논문, p. 53.)

락 (마디) 모양을 그려서 신표로 삼는다.

9 전주 좌동희

10 취전인 백회락

11 보증인 엄사락

12 지전인⁴⁶⁾ 장집단

13 지전인 삭문달

14 백회락은 좌동희에게 대추나무 한 그루를 빚졌다.

문서 중의 “仍將口分蒲桃用作錢質”의 구절은 白懷洛의 포도원이 口分田의 형식으로 얻은 것임을 보여준다. 구분전은 唐 田습⁴⁷⁾ 따라 환수의 대상이며, 당의 西州였던 吐魯番 지역 역시 이 법령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다만 실제로 구분전의 환수가 제대로 실행되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吐魯番 지역은 토지가 적고 인구가 조밀하여 사람들이 점유한 토지가 본래 적으며 향후 개간될 토지 또한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관에서 토지를 환수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관련 문헌과 출토문서에서는 토지 수수 사실이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문서 중에서 포도원이 구분전의 형식으로 등장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武周先漏新附部曲客女奴牌名籍」⁴⁸⁾은 武周 시기의 西州의 婢의

46) 고대 중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의 합의된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기록할 때 제삼자의 참여가 필수되었다. 계약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참여하는 보증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자를 漢代에는 任者·任知·時任知者 등으로 칭했고,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時見·時人·時證知·臨坐 등으로 칭하였다. (李祝環, 「中國傳統民事契約中的中人現象」, 『法學研究』, 1997년 6期.)

47) 사서에 기록된 唐代 田습은 武德7년(624), 開元7년(719), 開元25년(737)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령에 의하면 中男과 丁男에게 永業田 20무와 口分田 80무를 지급하며, 구분전은 환수의 대상이 된다. 唐代 吐魯番 지역의 토지 제도와 그 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鐸敏, 『中國土地經濟史研究』,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년, pp. 299-335 참조.

48)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參), p. 525.

名籍이며 이 문서 중 “當戶者로서 마땅히 받을 포도원과 菜園이 총 [] (合當戶應受桃菜等總 [])”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당의 제도에서 여자는 寡妻妾과 寡妻妾 중 當戶者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수전 대상이 아니다.⁴⁹⁾ 大谷文書 중 여성 수전의 사례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자 노예의 수전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다.⁵⁰⁾ 따라서 이 문서는 여자 노예의 포도원 수전과 관련한 희귀한 자료로 보인다.

吐魯番에서는 포도원의 조전과 매매 관련 문서가 출토되었다.⁵¹⁾ 앞에서 제시한 「高昌延昌西歲屯田條列得橫截等城葡萄頃畝數奏行文書」는 관사의 둔전 포도원과 민간인 사이의 조전과 관련된 문서이다. 문서 중 “橫截俗”, “高寧僧” 등의 기록은 조전을 하는 자가 “俗”戶이거나 “僧”戶였음을 알려준다.

「高昌延昌三十八年(598)參軍張顯[]租葡萄園券」⁵²⁾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延昌卅八年戊午歲十月廿五, 參軍張顯[]從[]

2 役取南園蒲(葡)桃(萄)宕[]東分, 承官名役二畝, 要(約)逗(經)六年

49) 北魏 均田制에서 일반 婦人과 奴와 婢는 田地의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隋代에 들어서면서 부인 및 노비의 수전권이 死文化되었고, 唐代에 이르러 과부인 妻妾에게 구분전 30무를 지급하고, 과부인 처첩 중에 戶主를 맡은 자에게 영업전 20무와 구분전 20무를 지급하는 것으로 田令이 정비되었다. (金鐸敏, 같은 책, pp. 303-304.)

50) 王豔明, 같은 논문, p. 57.

51) 馬燕雲은 『吐魯番出土文書』에서 포도원 매매와 조전 문서 11건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11건의 문서 중 고창국 시기의 문서는 8건이고 나머지는 당대 시기의 문서이다. 또한 조전 문서는 8건이고 매매 문서가 3건이다. (馬燕雲, 같은 논문, p. 89-91.) 다만 매매문서는 모두 고창국 시기의 것인데, 이를 통해 당대에는 포도원의 매매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52) 柳洪亮, 『新出吐魯番社會經濟文書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7年, p. 50.

- 3 歲十月卅日還桃堀. 桃中役使, 未歲五月至以前仰寺了; 至以後仰
 4 參軍了. 參[]至子歲盡, []租盡仰張參
 5 []自承了, 子[]仰張參軍自承了. 至以後付寺
 6 []參軍要(約)爲了, 被錦半張, 若官常[]
 7 []二主, 各不得返悔, 悔者一罰二入[]
 8 []行二主. 各自屬名爲信.
 9 時見 侯桑保 傳書 蘇法信

- 1 延昌38년 戊午歲 10월 25일, 참군 張顯[]는
 2 南園의 포도원을 宕[]의 동쪽부터 2무를 취하여, 6년 동안
 3 (임대 종료의) 해 10월 30일에 포도원을 반환한다. 포도원의 役
 使는 未歲 5월 이전은 절[寺]에서 담당하고, 그 이후는 참군이
 담당한다.
 4 참군의 []子歲에 이르러 다하고, []租는 장참군이 모두
 5 스스로 담당한다. 子[]張參軍이 스스로 담당하고, 이후는
 절에서 맡는다.
 6 [] 참군은 계약이 성립하면 被錦 반 장을 내고 만약 관
 이 늘[]
 7 [] 계약 쌍방은 각각 후회하여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
 는 자가 별도로 두 배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준다.⁵³⁾
 8 [] 계약이 시행되면 각각은 서명하여 신표로 삼는다.
 9 시견 후상보 천서⁵⁴⁾ 소법신

53) 「高昌重光四年孟阿養夏菜園券」(佚號), 「高昌夏某寺葡萄園券」(72TAM153: 36, 37) 등의 출토 계약문서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各不得返悔, 悔者罰二入不悔者”는 계약문서의 위약 관련 상용구로 보인다.

54) 계약문서를 쓰는 작성자를 가리킨다. 券은 고대 중국에서 매매나 채무 관계에서 만드는 증거를 말한다. 簡牘에 작성하여 반으로 나눈 후 계약 쌍방이 하나씩 소지함으로써 증빙으로 삼았다. 후에는 간독이 종이로 대체되었다. ‘傳’이란 ‘請’, ‘使’의 의미이다. 따라서 ‘천서’란 계약문서를 써 달라고 부탁한 것을 말하며, 계약문서 작성 시에 보수를 받고 입회하여

이는 민간의 개인과 사원과의 조전 계약 문서이다. “仰寺了”, “付寺” 등의 구절로 보아 소작을 내어주는 주체는 사원이고 소작을 하는 주체는 參軍 張顯□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방 관리와 모 사원 간의 포도원 조전 계약 문서이다.

포도원이 조전되거나 매매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한 호구가 타인과 조전하거나 혹은 매매하는 유형이다. 「翟強辭爲共治葡萄園事(一)」, 「翟強辭爲共治葡萄園事(二)」⁵⁵⁾의 두 문서에서 소작인 翟強은 빈곤하여 채무를 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某曹”의 포도원을 소작하였다. 또한 「高昌延昌六年(566)呂阿子求買桑葡萄園辭」⁵⁶⁾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延昌六年丙戌□□□八日, 呂阿子

2 辭: 子以人微產□甚少, 見康□

3 有桑蒲桃一園, □求買取, 伏願

4 殿下照茲所請, 謹辭.

5 中兵參軍張智壽傳

6 令 聽買取

1 延昌6년 병술□□□8일, 呂阿子の

2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아자는 미천하고 재산이 매우 적어 康□에게

3 뽕밭과 포도원 한 곳이 있음을 보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엎드려

4 전하께옵서 이 청을 살피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아웁니다.

5 중병참군 장지수 傳

6 구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계약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가리킨다. 비슷한 단어로 書券이 있다(張永莉, 같은 논문, pp. 24-25.).

55)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壹), pp. 51-52.

56)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貳), p. 140.

빈곤한 개인인 呂阿子가 康某에게서 뽕밭과 포도원을 사기 위해 고창국왕에게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반대로 경영 부실로 인해 포도원을 팔게 된 사례도 존재한다. 「高昌延昌三十四年(596)呂浮圖乞賣葡萄園辭」⁵⁷⁾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1 □昌州四年甲寅歲六月三日, 呂浮圖辭: 圖家□
- 2 □乏, 斛用不周, 于樊渠有蒲桃一園, 經理不
- 3 □, 見賣得蒲桃利□□, □惟
- 4 □下希乞賣取, 以存□□聽許, 謹辭.
- 5 通□令史鞠儒傳
- 6 令 聽賣取

- 1 延昌34년 甲寅歲 6월 3일, 呂浮圖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부의 집은
- 2 궁핍하고 斛用이 주밀하지 못합니다. 樊渠에 포도원 한 곳이 있으나,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3 포도원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고자 오로지
- 4 전하께 매도 허가를 받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아웁니다.
- 5 통사영사 국유 傳
- 6 매도하는 것을 허락한다.

呂浮圖는 가세의 빈곤함과 포도원의 경영 부실로 인해 포도원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고창 국왕에게 매도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둘째, 地主와 富商들은 포도원 경영에서 높은 이익을 내기 위해 활발히 조건, 매매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전형은 상기한 좌동희의 조건과 매매 활동을 들 수 있다. 출토문서들을 통해 좌동

57)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貳), p. 141.

회는 현지의 부상이며, 고리대금업자임을 알 수 있다. 그가 포도원 사업에 종사한 목적과 동기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며 일반 농민의 생계를 위한 조건, 매매와는 구별된다.

3.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 기술

1) 포도 定植의 시기와 방법

2장에서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업에 대하여 출토문서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그렇다면 당시 포도원에서는 실제로 포도 定植을 어떻게 시행하였을까? 이 문제 역시 출토문서의 분석을 통해 다뤄 보고자 한다. 吐魯番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봄에 포도를 심는다. 「高昌乙酉、丙戌歲某寺條列月用斛斗帳曆」⁵⁸⁾ 중 음력 3월 부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粟三斛九斗得錢三文, 麥一斛五斗作面, [床三] 斗, 供三月三日食

2 粟八斛四斗, 雇外作人二十人, 用西澗垂桃(萄)中掘搆种 []並食糧

1 粟 3斛 9斗로 錢 3文을 얻고, 보리 1斛 5斗로 면을 만들고 메기장 3두로 3월 3일에 식량으로 공급하였다.

2 粟 8곡 4두로, 고용한 노동자 20인에게 서쪽 골짜기 연변 포도원 안에 고랑을 굴착하고 포도를 심은 후⁵⁹⁾ 식량으로 공급하였다.

58)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壹), pp. 401-402.

59) 원문의 “垂”는 “陲”로 해석되며, 즉 서쪽 골짜기 연변이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並食糧”에서 “桃” 역시 보충하였다. (吳震, 「七世紀前後吐魯番地區農業生產的特色-高昌寺院經濟管窺」, 『吳震敦煌吐魯番文書研究論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年, pp. 537-540.)

문서의 내용으로 보아 626년 음력 3월 3일 이후에 포도원을 새로 개척하여 어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다면 음력 3월 3일 이후 어느 시점에 포도를 심은 것일까? 蔣洪恩과 喬秋穎은, 현재 吐魯番 지역에서 火焰山 북쪽 지역이 다소 한랭하여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재배가 시작되고 화염산 남쪽이 기온이 비교적 높아서 3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에 재배가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당시에도 음력 4월 이전에 정식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현지 주민의 전통적인 포도원 건설 방법은 새로 조성된 포도원의 定植坑 안에 포도 가지를 직접 꺾꽂이[定植] 방식으로 심는데, 당시 吐魯番 주민 역시 이러한 꺾꽂이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⁶⁰⁾

2) 덩굴시령과 담장의 설치

포도는 덩굴나무로 그 줄기가 직립할 수 없는 식물이어서 일반적으로 덩굴이 타고 오를 수 있는 시령을 설치하여 재배한다. 그러나 清代 祁韻士의 『萬里行程記』에는 당시 吐魯番에서는 “포도는 땅에 널려 자라니 시령이 필요 없다. (蒲萄蔓地而生, 不須引架)”라고 기록하고 있다.⁶¹⁾ 하지만 「武周長安三年(703)西州高昌縣嚴苟仁租葡萄園契」⁶²⁾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 長安三年三月二日嚴苟仁于麴善通邊租張渠陶

2 蒲一段二畝. 陶內有棗樹大小拾, 四院牆壁並全. 其陶

60) 蔣洪恩・喬秋穎, 「從出土文獻看吐魯番晉唐時期的葡萄栽培」, 『敦煌學輯刊』, 2021年 4期, p. 110.

61) 祁韻士 著, 李廣潔 整理, 『萬里行程記』,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2年, p. 31.

62)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參), p. 432.

- 3 契限五年收佃. 今爲陶內支^木短, 當年不論價直. 至辰
- 4 歲, 與租價銅錢肆伯捌拾文. 到巳歲, 與租價銅錢陸伯肆拾文.
- 5 至午歲, 與租價銅錢捌伯文. 到未歲, 一依午歲價, 與捌伯文. 年

- 1 長安3년 3월 2일, 嚴苟仁이 麴善通에게서 張渠에 있는 포도원
- 2 한 곳 2畝를 빌린다. 포도원 내에는 대추나무가 대소 10그루가 있으며 네 개의 벽은 모두 온전하다. 그 포도원
- 3 계약은 5년으로 하고租를 받는다. 현재 포도원 내 支?은 짧으므로 올해는 값을 따지지 않는다. 辰歲가 되면
- 4 조는 동전 480문으로 한다. 巳歲가 되면 조는 동전 640문으로 한다.
- 5 午歲가 되면, 조는 동전 800문으로 한다. 未歲가 되면 오세 때의 가격에 따라 800문으로 한다.

盧向前은 이 문서 중 “支^木”를 “支架”로 해석하였다. 즉 시령이 짧다는 것은 정식된 포도가 자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왕성하게 성장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첫 해에는租를 잠시 걷지 않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⁶³⁾ 또한「高昌乙酉、丙戌歲某寺條列月用斛斗帳曆」의 “掘構種桃”에서 “構”자에 대해 王啓壽는 “構”를 “構”와 같은 글자로 보고 “構”는 시령이라고 여겨 흙을 판 후에 시령을 설치한다고 하였다.⁶⁴⁾ 다른 문서들에서도 “構”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포도 재배는 고랑이나 구멍을 파서 정식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꺾꽂이한 포도는 그 줄기가 그 해에 1.5~3미터 정도로 성장한다. 이 때문에 포도원에서는 정식한 그 해에 임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덩굴시령을 설치해야 한다.⁶⁵⁾ 이를 보면, “掘構”는 흙을 판 후에 포도 덩굴시령을 설치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3) 盧向前, 같은 논문, pp. 110-120.

64) 王啓壽, 같은 책, p. 385, p. 588.

65) 蔣洪恩·喬秋穎, 같은 논문, p. 112.

신장 니야 유적지에서 출토된 제586호 카로슈티[佉盧]文書에서 “이후 司書 羅沒索蹉는 해당 포도원의 시렁, 포도 수확, 음주, 교환, 매도를 모두 마음대로 한다(自此以後, 司書羅沒索蹉對該葡萄園有權支架、拆架、剪葡萄、飲(酒)、交換、出賣、爲所欲爲.)”라는 구절이 있다.⁶⁶⁾ 漢에서 晉에 이르는 시기 타림 분지의 니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시렁을 설치하여 포도를 재배했던 것이다. 吐魯番 출토문서 중에서도 “柱索”, “埋柱” 등의 구절이 등장하였고, 이는 포도 덩굴시렁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北凉建平五年(441)張鄯善奴夏葡萄園券」⁶⁷⁾에는 “포도는 모두 시렁에 걸어둔다(蒲陶並注索)”라고 하였다. 「高昌夏某寺葡萄園券」⁶⁸⁾에는 “매해 著索과 □張柱 20(개)”⁶⁹⁾이라는 구절이 있다. 「高昌曹、張二人夏果園券」⁷⁰⁾에는 “기둥 2017(개)”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은 포도원에 시렁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唐呂致德租葡萄園契」⁷¹⁾에서는 지주와 관련하여 “得支還支”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支柱가 필요한 때에는 곧 지주로써 지탱하라는 것이다. 이외에 「武周聖曆元年(698)前官史玄政牒爲四角官葡萄已役未役人夫及車牛事」에 “埋柱”가 등장한다.

문서 이외에 吐魯番 아스타나墓地 64TAM13에서 발견된 5호16국 시대의 벽화에서 포도 덩굴시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⁷²⁾

66) 蔣洪恩・喬秋穎, 같은 논문, p. 112에서 轉載.

67) 榮新江・史睿 主編, 『吐魯番出土文獻散錄』, 北京: 中華書局, 2021年, p. 357.

68)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壹), p. 283.

69) 덩굴식물인 포도를 붙들어 지지하는 끈과 기둥이라고 볼 수 있다. (盧向前, 같은 논문, p. 111.).

70)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壹), p. 283.

71) 陳國燦, 「鄯善縣新發現的一批唐代文書」, 『吐魯番學研究』, 2005年 2期, pp. 15-32.

72) 王炳華, 「新疆農業考古概述」, 『農業考古』, 1983年 3期, pp. 102-121.

회화 중 대부분은 墓主의 생산 활동을 재현한 것이나, 우측 상반부에 전원 생활 및 노동 장면을 묘사하였다. 농기구와 농지를 그리고 아울러 그 농지 내에 7개의 斗拱 모양의 도안을 그렸는데, 이는 포도 덩굴시렁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 벽화를 통해 천막형 방식의 시렁이 당시 吐魯番 주민이 포도 재배 때 채용한 시렁으로 추정할 수 있다.⁷³⁾

천막형 시렁 이외에 살아 있는 나무를 이용하는 방식 역시 포도 시렁의 한 형식이다. 「高昌曹、張二人夏果園券」에서 “포도원 내에 배와 대추 나무가 있다.(桃中梨棗盡□桃行)”라는 구절이나, 「武周長安三年(703)西州高昌縣嚴苟仁租葡萄園契」에서 “포도원 내 대추 나무 대소 10그루(陶內有棗樹大小拾根)”라는 구절이나, 「高昌延昌六年(566)呂阿子求買桑葡萄園辭」에서 “뽕과 포도가 하나의 밭에 심어져 있다(桑與葡萄共處一園)” 등의 구절을 보면 吐魯番 지역에서도 나무를 심어 포도 덩굴시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배와 대추 등은 포도와 함께 果樹로서 間作되었을 뿐, 시렁을 위해 심기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포도원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과일 도난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둘레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唐呂致德租葡萄園契」에서 “포도원 담장이 붕괴되면 때맞춰 수리한다(□□陶垣壁崩破, 及時修理)”라고 하였다. 「武周長安三年(703)西州高昌縣嚴苟仁租葡萄園契」에서는 “네 곳의 담장이 모두 온전하다. (四院牆壁並全)”고 하였다. 다만 담장 주변에 심어진 포도는 햇빛과 통풍이 부족하여 생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치된 담장이 그리 높거나 두껍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포도원 내부에 水源이 없으므로 담장이 灌溉를 저해하지 않게 설치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장 니야 유적지에서 발굴된 과수원은

73) 蔣洪恩·喬秋穎, 같은 논문, pp. 113-114.

겨우 木柵만으로 외부와 격리되어 있었다.⁷⁴⁾

3) 포도의 剪枝 문제 및 冬季 관리

포도 원산지는 대개 겨울은 온화하여 방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⁷⁵⁾ 그러나 吐魯番 지역은 춥고 건조하여서,⁷⁶⁾ 포도의 凍害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를 땅에 묻는다. 따라서 포도 재배에 있어 겨울철 방한 작업은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며, 출토문서에서도 포도를 땅에 묻어 방한하는 작업을 찾아볼 수 있다. 「武周聖曆元年(698)前官史玄政牒爲四角官葡萄已役未役人夫及車牛事」는 다음과 같다.

- 1 四角陶(萄)所
- 2 合陶內抽枝、覆蓋、踏漿並收拾殘枝、埋柱等總料得夫玖
- 3 拾陸人, 人各役單功, 各合伍日
- 4 七十七人役訖
- 5 一十九人未役
- 6 合運漿及運枝? 料等車牛貳拾伍乘, 乘別各一日役
- 7 十乘運漿役訖
- 8 一十五乘未役
- 9 右陶內昨准往例料得夫及牛車數, 各
- 10 具件如前, 請處分.
- 11 牒件狀如前, 謹牒.
- 12 聖曆元年十月 日前官史玄政牒

성력 원년 10월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698년 11월 8일부터 12월

74) 蔣洪恩・喬秋穎, 같은 논문, pp. 113-114.

75) 대략 7천여 년 전, 소아시아의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지역 및 그 南岸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포도 재배가 시작되었다. (衛斯, 같은 논문, p. 155.)

76) 吐魯番 지역의 최저 기온은 대개 영하 25도 이하까지 내려간다. (盧向前, 같은 논문, p. 112.)

7일까지이다.⁷⁷⁾ 이 시기 吐魯番은 초겨울에 해당하여 다른 일반적 인 작물과 마찬가지로 포도원 내 모든 재배 작업은 기본적으로 종료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은 10월의 작업기록 이 아니라 담당관이 성력 원년 한 해 동안 포도원에서 행해진 徭役의 운영 정황을 종합한 기록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도의 “埋土” 는 문서가 작성된 시기인 10월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문서가 지닌 한계로 인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 문서에서 등장하는 “抽枝”에 대해 일부 학자는 이를 剪枝로 해석하였다.⁷⁸⁾ 즉 포도의 가지와 덩굴을 잘라서 생장을 균등하게 만들어 좋은 과일이 열리도록 만들고, 아울러 병충해를 입거나 죽은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果樹 전지에 관련된 문헌 기록은 元代에 들어서야 비로소 등장한다. 『農桑衣食撮要』에서 과수에 대해 “낮고 작고 어지러운 가지를 제거하여 기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과일이 크게 맺힌다. (削去低小亂枝條, 勿令分力, 結果自肥大)”라 하였다.⁷⁹⁾ 따라서 吐魯番 지역의 농민이 과수에 대해 이 시기에 전지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抽枝”에 대해 劉家駒는 “抽”자가 “收”를 의미한다고 고증하였다.⁸⁰⁾ 즉, 겨울이 되면 방한을 위해 포도를 시렁에서 내려 잘 등글게 말아 정리하여 그 부피를 효율적으로 축소하여 땅에 묻는다. 『齊民要術』에서도 “10월 중에 뿌리에서 1보 정도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서 포도를 말아 모두 집어넣는다.(十月中, 去根一步許,

77) 蔣洪恩·喬秋穎, 같은 논문, p. 118.

78) 王啓壽, 같은 책, p. 170; 盧向前, 같은 논문, p. 112; 陳習剛, 「吐魯番文書所見唐代葡萄的栽培」, 『農業考古』 2004年 1期 pp. 224-229.

79) 魯明善 著, 王毓瑚 校注, 『農桑衣食撮要』, 農業出版社, 1962年, p. 29.

80) 劉家駒, 「吐魯番古今葡萄生產技術之比較研究」, 『新疆古代園農科技與物產史雜考』, p. 31.

掘作坑，收卷蒲萄悉埋之)”라고 하였다.⁸¹⁾ 여기에서 “收”는 바로 “拙”와 대응한다. 따라서 “추지”란 전지가 아니라 포도 덩굴을 잘 거두어 말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문서를 보면 “拙枝” 이후의 과정은 “覆盖”인데, 이는 포도 덩굴을 고랑 혹은 구덩이에 넣은 후 그 위를 흙으로 덮는 것을 말한다. “복개”는 포도 재배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방한 대책이다. 「唐年次未詳(八世紀前期)西州寡婦梁氏辭(附判)」⁸²⁾은 때에 맞춰 포도를 복개하지 못해 발생한 분규를 다루는 관문서이다. 또한 「唐呂致德租葡萄園契」에서도 덩굴에 대해 “得甕还甕” 하라는 계약 상의 요구가 있다.⁸³⁾ 그 의미는 겨울이 되어 포도 덩굴을 땅에 묻어야 할 때가 되면 응당 땅에 묻어서 동해를 예방하라는 것이다.

『齊民要術』에서는 “近枝莖薄安黍穰彌佳。無穰，直安土亦得”이라고 하였다.⁸⁴⁾ 그 의미는 포도를 땅에 묻을 때 포도 위에 기장의 대를 까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기장 대가 없다면 그냥 흙으로 덮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국씨 고창국보다 이른 시기의 문서인 「關氏高昌永康年間(466~485)供物、差役帳」⁸⁵⁾ 중에서 여러 차례 “土堆蒲陶”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 흙으로 포도를 덮는 것 이외에 다른 작업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시대가 다르기는 하지만 국씨 고창국과 당대 吐魯番에서도 포도를 묻을 때 다른 식물 조직을 이용하여 복개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만 덮었을 가능성도 고려

81) 賈思勰 著，繆啓愉，繆桂龍 譯注，『齊民要術譯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6年，p. 267.

82) 齊陳駿，「敦煌、吐魯番文書中有關法律文化資料簡介」，『敦煌學輯刊』，1993年 1期，pp. 1-10；趙曉芳，『從移民到鄉裏—公元7-8世紀唐代西州基層社會研究』，蘭州：甘肅文化出版社，2018年，p. 191.

83) 榮新江・孟憲實・李肖 主編，『新獲吐魯番出土文獻』，北京：中華書局，2007年，pp. 129-145.

84) 賈思勰 著，繆啓愉，繆桂龍 譯注，『齊民要術譯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6年，pp. 267-269.

85) 榮新江・孟憲實・李肖 主編，같은 책，p. 372.

해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는 “抽枝、覆蓋、踏漿”의 작업이 한 번에 연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여기고, 이 모든 작업을 방한 작업의 전체 과정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답장”을 흙과 물을 이겨 진흙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복개한 포도 위를 다시 진흙으로 밀봉하여 방한 효과를 가증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⁸⁶⁾ 그러나 음력 10월은 초겨울이며 이미 포도 수확까지 마친 시기이다. 또한 포도의 주요 가공품인 포도주 제조를 위한 포도 착즙 작업 역시 끝난 시점이다. 이 기록은 그 해 모든 요역의 총결산이지 10월 한 달 동안만의 작업이 아니며, “답장”은 포도의 방한 대책과는 상관없는 작업이다. 게다가 진흙 밀봉은 땅속 포도의 호흡을 저해하여 포도에 상해를 줄 수가 있다.⁸⁷⁾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답장”은 포도즙[漿]을 짜기 위해 포도 과실을 발로 밟아 파쇄하는 행위[踏]를 의미한다.⁸⁸⁾

그렇다면 땅에 묻혀서 겨울을 난 포도를 어느 때 다시 땅에서 꺼내는 것일까? 포도를 꺼내는 작업이 너무 이르면 바람과 별에 말라버리고, 너무 늦으면 가지 위의 눈이 노랗게 변하여 출토할 때 쉽게 상처를 입고 햇빛 아래서 죽어 버린다. 이 중요한 작업의 구체적인 시점은 吐魯番 출토문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蔣洪恩·喬秋穎은, 현재 투루판의 포도 재배 농민들이 경험에 따라 기후를 살펴 대략 驚蟄과 春分 사이에 포도 덩굴을 땅에서 꺼내므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작업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⁸⁹⁾

86) 程喜霖, 「對吐魯番所出四角萄役夫文書の考察—唐代西州雜徭之一」, 『中國史研究』, 1986年 1期, pp. 50-63; 陳習剛, 같은 논문, pp. 224-229.

87) 劉家駒, 같은 논문, p. 34.

88) 盧向前, 같은 논문, pp. 113-114.

89) 蔣洪恩·喬秋穎, 같은 논문, p. 117.

4. 맺음말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원한 포도 재배는 동서양으로 확산되었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까지 전파되었다. 동서 문화 교류의 가교를 담당했던 吐魯番 지역 역시 포도 재배가 왕성하였다. 기존의 문헌 사료에 吐魯番 지역에서도 포도 생산과 가공이 이뤄졌다는 기록은 남아 있으나, 관련된 정보는 매우 소략하였다. 그러나 吐魯番文書의 발견으로 인해, 이 지역 포도 재배의 역사적 실상에 대해 자세히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포도와 관련된 吐魯番文書를 분석하면, 吐魯番 지역에서 포도원의 소유자는 크게 官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 소유자는 다시 官人, 寺院, 일반 농민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들의 소유한 포도원의 규모는 대체로 각각의 지위와 부유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포도원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도 하였으나 租佃을 통해 포도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포도원은 매매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출토문서를 통해 吐魯番 지역의 포도 재배 기술도 고찰할 수 있다. 음력 3월에 포도를 꺾꽂이 방식으로 定植하며 시령을 설치하여 포도 덩굴을 지탱하였다. 포도원 주변에는 토지 경계 구획을 위한 담이 설치되었으나 포도의 생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 크게 설치하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는 剪枝하지 않았으며, 겨울이 되면 포도나무를 등글게 말아 정리하여 땅에 묻었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동해를 방지하였다.

吐魯番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는 건포도와 포도주로 가공되었고, 특히 포도주는 중국에서 환영받는 상품이었다. 출토문서 중에는 포도주의 제조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 흥미를 자아낸다. 吐魯番 지역 포도주 제조에 대한 고찰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史記』, 『梁書』, 『北史』. 北京 中華書局本
- 北魏] 賈思勰 著, 繆啓愉, 繆桂龍 譯注, 『齊民要術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 宋] 王溥, 『唐會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 元] 魯明善 著, 王毓瑚 校注, 『農桑衣食撮要』, 農業出版社, 1962年.
- 清] 祁韻士 著, 李廣潔 整理, 『萬里行程記』,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2年.
- 唐長孺 主編, 『吐魯番出土文書』(全四冊), 北京: 文物出版社, 1992-1996年
- 榮新江·孟憲實·李肖 主編, 『新獲吐魯番出土文獻』, 北京: 中華書局, 2007年
- 榮新江·史睿 主編, 『吐魯番出土文獻散錄』, 北京: 中華書局, 2021年
- 王啓壽, 『吐魯番出土文獻詞典』, 成都: 巴蜀書社, 2012年

2. 논문

- 朴世旭, 「中國 葡萄와 葡萄酒 傳來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亞人文學』10輯, 2006년.
- 盧向前, 「麴氏高昌和唐代西州的葡萄、葡萄酒及葡萄酒稅」, 『中國經濟史研究』 2002年 4期.
- 馬燕雲, 「吐魯番出土租佃與買賣葡萄園券契考析」, 『許昌學院學報』, 2006年 6期.
- 乜小红, 「對古代吐魯番葡萄園租佃契的考察」,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11年 3期.
- 孫振玉, 「试析麴氏高昌王国对葡萄种植经济以及租酒的经营管理」, 敦煌吐魯番學新疆研究資料中心 編, 『吐魯番學研究專輯』, 『新疆文物』編輯部, 1990年.
- 吳姪姪, 『吐魯番出土衣物疏輯錄及所記名物詞彙釋』, 西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年.
- 吳震, 「七世紀前後吐魯番地區農業生產的特色-高昌寺院經濟管窺」, 『吳震敦煌吐魯番文書研究論集』, 上海古籍出版社, 2009年.
- 王炳華, 「新疆農業考古概述」, 『農業考古』, 1983年 3期.
- 王素, 「麴氏高昌中央行政體制考論」, 『文物』, 1989年 11期.
- 王豔明, 「從出土文書看中古時期吐魯番的葡萄種植業」, 『敦煌學輯刊』 2000年 1期.
- 衛斯, 「唐代以前我國西域地區的葡萄栽培與釀酒業」, 『農業考古』, 2017年 6期.
- 李祝環, 「中國傳統民事契約中的中人現象」, 『法學研究』, 1997年 6期.
- 張南, 「古代新疆的葡萄種植與釀造業的發展」, 『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

版』, 1993年.

張永莉, 『吐魯番契約文書詞語例釋』,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年.

蔣洪恩·喬秋穎, 「從出土文獻看吐魯番晉唐時期的葡萄栽培」, 『敦煌學輯刊』, 2021年 4期,

程喜霖, 「吐魯番文書中所見的麴氏高昌的計田輸租與計田承役」, 『出土文獻研究』, 1985年.

程喜霖, 「對吐魯番所出四角萄役夫文書的考察-唐代西州雜徭之一」, 『中國史研究』, 1986年 1期.

齊陳駿, 「敦煌、吐魯番文書中有關法律文化資料簡介」, 『敦煌學輯刊』, 1993年 1期.

趙文潤, 「從吐魯番文書看唐代西州地租的性質及形態」, 『敦煌學輯刊』, 1989年第1期.

陳國燦, 「鄯善縣新發現的一批唐代文書」, 『吐魯番學研究』, 2005年 2期,

陳習剛, 「吐魯番文書所見唐代葡萄的栽培」, 『農業考古』 2004年 1期.

3. 단행본

金鐸敏, 『中國土地經濟史研究』,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년.

柳洪亮, 『新出吐魯番社會經濟文書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7年.

趙曉芳, 『從移民到鄉裏-公元 7-8 世紀唐代西州基層社會研究』,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2018年.

(투고일: 2023. 10. 31 심사완료일: 2023. 12. 16 게재확정일: 2023. 12. 18)

이완석
소속: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연구교수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30
전자우편: yws0808@korea.com

[Abstract]

Grape Cultivation in Turpan area during Gaochang & Tang Dynasty Period

Lee, WanSuk

During the period of Gaochang(高昌) and Tang Dynasty, the owners of vineyards in Turpan area are largely divided into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Civilian owners are again subdivided into government officials, temples and ordinary farmers. The size of the vineyard varied according to its owner's status and wealth. The vineyard was cultivated by the owner himself, or grape grown through tenant farming.

In Turpan area, grapes were planted in the third month of the lunar calendar, and a rack was installed to support the vines. A fence was installed around the vineyard for boundary compartments, but it was not installed largely so as not to interfere with the growth of grapes. In winter, the vines were rolled up and arranged and buried in the ground, and the ground was covered with soil to prevent freezing.

Key words: Turpan Excavated documents Grape Gaochang(高昌)
Tang dynasty Xizhou(西州)